**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1-12절>

1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5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6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둔져지리라

11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 사역 무대는 유대 광야와 요단강 주변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외쳤고, 또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 역시 제사장 집안인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흠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도록 이 부부에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면서, 그 아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는 천사의 지시대로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짓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집니다.

성인이 된 요한은 광야로 나갑니다.

그는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으므로, 종교적 출세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는 빈들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전해 들은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그렇게 광야에서 야인의 삶을 살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간의 암흑기를 지나 마침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어떤 화려한 곳에 거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지도자에게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편안함과 출세의 유혹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빈들로 나갔던 사람,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말씀에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시작할 수도, 바르게 마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편안한 자리,

모두가 꿈꾸는 화려한 자리,

모두가 머리 들이미는 시끌벅적한 자리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마귀의 유혹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마치 무엇에 취한 듯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며,

잠시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빈들로 나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하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가려하지 않는 소외된 자리,

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나는 자리,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채워지는 자리,

바로 그곳에 믿음으로 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빈 들에서 빈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빈들에서 요한이 들었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33-34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느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요한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위에 성령이 내리는 사람을 보거든, 그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뒤에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요단 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를 속하는 길은 성전에서 자기 대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실상 이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제사는 점점 형식적이 되고, 본질을 잃어갔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점점 사라져갔고, 나 대신 다른 어떤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로 말미암는 통렬한 아픔도 점점 무뎌져갔습니다.

제사의식은 끊임없이 행해졌고, 짐승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갔지만, 사람들의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 요한이라는 한 야인이 나타나서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는 그 자체로 죄가 사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죄사함의 순간을 겸손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한이 믿기에 그것은, 곧 오실 심판주를 맞기 위한 가장 바른 준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물세례가 베풀어지는 경우는,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였습니다.

즉 여기서 세례는 더러운 상태에 있었던 이방인을 씻겨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그 이방인이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기 위한 예비단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적어도 죄에 있어서만큼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짓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일부 유대인들을 자칫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매우 급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자기 의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또다시 서먹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잠시 잠간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인도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실존의 역설을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지만,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주님 앞에서 낙심치 않고 끊임없이 또다시 의의 길로 나아갑니다.

진실한 회개의 삶을 통해 주심의 오심을 거룩한 감격 속에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참으로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마치 모두 다 이런 진실한 회개의 기회를 손꼽아 기다려오기나 한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세례 열풍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의 비범한 행색과 강력한 메시지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지도자들과 성전제의에 대해 품고 있던 모종의 불신을 반영하는 현상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많은 백성이 이처럼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며 따르자, 종교지도자들 그룹 안에 비상이 걸립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그 세례의 현장에 마침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에 대해 조사하도록 고위 종교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자마자 버럭 호통부터 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지만 이어서 요한은, 그들이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매우 중요한 권면을 줍니다.

본문 8-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자신과 자기 민족을 구별지으려 했던 유대인 평신도 그룹이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의를 추구했던 분리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두개인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종교권력을 손에 쥐고 있거나, 거기에 줄을 대고 있는 유대인 성직자 그룹이었습니다.

소위 세속화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종교를 하나의 특권으로 인식하고, 그 특권의식 속에서 개인적, 민족적 안정을 꾀하려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킨다는 것, 내가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와 같은 종교적 특권의식을 향해 요한은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그처럼 높아진 마음과 태도는 곧 오실 심판주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기쁜 소식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특권의식과 그것이 보장해 주는 안정적 지위가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방해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근본적인 삶의 방향전환이 없었으므로, 그에 합당한 좋은 열매들도 맺혀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겐,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방해하는 어떤 종교적 특권의식이 없습니까?

세례 요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된 복이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쳤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은

진정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에 방해가 되는

하나의 특권의식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 다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믿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이 내게 구원이 됨을 믿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입니까?

그런 식의 믿음은 그저 천국행 티켓을 의미할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그 안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선물로 주어짐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 맞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굳건히 사수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서신서에서는 분명히 행위보다는 믿음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롬 3:31)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 분명 자기 의를 세우는 삶과 배치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속에서 확증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결코 어떤 특권의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에 대한 감사요, 진리에 대한 복종일 따름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삶은 계속되는 진실한 회개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진실한 회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믿음의 진정성은 입증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믿음과,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섰을 때의 믿음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늘 진실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저희 삶 속에 그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